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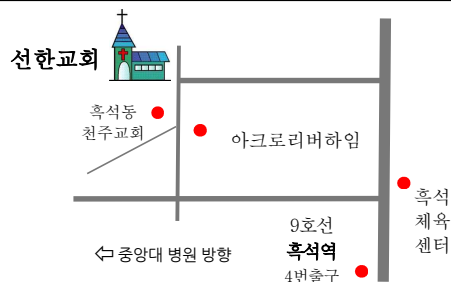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주 일 예 배     |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1부 주일 오전    | 9:30          | 유 아 부           | 오전 10:00 |
| 2부 주일 오전    | 11:00         | 유 초 등 부         | 오전 10:00 |
| 3부(청년)주일오후  | 1:00          | 청 소 년 부         | 오전 11:00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3:30    | 청 년 부           | 오후 1:00  |
| (5째주 셀가족모임) |               | 비 전 위 십         | 오후 2: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7:30   | 남전도회            | 오후 2:00  |
| 금 요 기도 회    | 금요일 저녁 8:30   | 바 울 회           | 오후 2:00  |
| 새 벽 예 배     | 월-금요일 새벽 5:30 | 마 리 아 회         | 오후 2:00  |
| 셀 가족 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드 보 라 회         | 오후 2:00  |
|             |               | 에 스 더 회         | 오후 2:00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 역 자   | 담 임 목 사 임 춘 배 | 국 내 선교 사    | 오 인 숙, 한 배 선         |
|         | 교육 목 사 정 용 준  | 협 력 교 회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교육전도사 윤 영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 협력전도사 오 호 남   |             | 주안예교회 (이경필 목사)       |
|         |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은 퇴 장 로 | 고 상 돈, 김 대 희  | 해 외 협력 선교 사 | 이금춘, 조나단, 김만조        |
|         | 박 회 태, 유 신 웅  |             |                      |
|         | 조 윤 익         |             |                      |
| 장 로     | 이 태 수 (집사장)   | 관 리 장 로     | 손 석 규                |
|         | 박 영 근, 윤 호 중  | 500/50 교 회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조 계 승, 편 도 선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 오 전<br>예 배 | 1부 오전 9:30                | 2부 오전 11:00 | 인도 : 임춘배 목사                  |
|            | 3부 오후 1시                  |             | 인도 : 정용준 목사                  |
| 1, 2부      |                           |             | 3부 (청년)                      |
| 기 원        | 인도자                       |             | 경배와 찬양                       |
| 찬 양 과 경 배  | 21장 (통일찬송가 21장)           |             |                              |
| 교 독 문      | 교독문 7번 (시편 13편)           |             |                              |
| 찬 양 과 경 배  |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         |             |                              |
| 기 도        | 편도선 장로                    |             |                              |
| 찬 양        | 드림성가대                     |             |                              |
| 말 씬 봉 독    | 디모데후서 2장 14~18절           |             | 요 1:9~12                     |
| 설 교        |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br>(임춘배 목사) |             | 말씀의 청년으로<br>일어서라<br>(정용준 목사) |
| 헌 금        | 헌금송 : 김대희 장로, 김혜선 권사      |             |                              |
| 환 영 및 광 고  | 인도자                       |             | 청년부 회장                       |
| 파 송 의 노 래  | 하나님의 부르심                  |             | 삶의 예배                        |
| 축 도        | 임춘배 목사                    |             | 정용준 목사                       |
| 성 도 의 교 제  |                           |             | 다함께                          |

|            |                                    |             |
|------------|------------------------------------|-------------|
| 주 일<br>오 후 | 오후 3:30                            | 사회 : 임춘배 목사 |
|            |                                    |             |
| 찬 양        | JOY AND                            |             |
| 기 도        | 오세일 권사                             |             |
| 성 경 봉 독    | 요한계시록 17장 1~24절                    |             |
| 말 씬        | 세 번째 환상: 큰 성 바벨론의 멸망II<br>(임춘배 목사) |             |
| 광 고 및 기 도  | 인도자                                |             |

|            |                          |              |
|------------|--------------------------|--------------|
| 수 요<br>예 배 | 오후 7:3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악인과 의인의 결말 (시 37편 1~11절) |              |

|                        |                                                                                                                                                |  |
|------------------------|------------------------------------------------------------------------------------------------------------------------------------------------|--|
| 교회소식                   |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br>-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예 배 안 내             |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br>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br>2) 점심: 부서별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루디아회)<br>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
| 2. 특 별 구 호 현           | 오늘 튀르키예(터키)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3. 창 립 기 념 예 배 준 비 회 의 | 오늘 2부 예배 후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br>대상: 집사장, 예배찬양위원장, 재정위원장, 관리위원장, 청년부회장, 마리아회장, 드보라회장, 여호수아회장 요셉회장                                                    |  |
| 4. 헌 아 식               |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김유이(김성찬, 전지혜) 헌아식이 있습니다.                                                                                                          |  |
| 5. 성 경 학 교 수 련 회       | 1) 유초등부 성경학교: 2월 5일, 12일, 19일, 26일 주일(4주)<br>2) 청소년부 수련회: 2월 25일(토)~26일(주일)<br>3) 마리아 수련회: 2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  |
| 6. 교 수 련 사 회           | 3월 1일(수) 오전 10시~오후 4시<br>장소: 2층 분당 / 대상: 셀리더, 교사, 참석하길 원하는 성도<br>※ 점심 뷔페 식사 제공                                                                 |  |
| 7. 주 차 안 내             | 중앙대 정문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br>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
| 8. 선 한 교 회 장 학 생 선 발   | 2월 5일(주일)~19일(주일) 자정까지 2주간.<br>* 문의: 경조장학부 정구원 집사(010-5800-2692).                                                                              |  |
| 9. 소 천                 | 박영근 장로님 부친 故박삼용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br>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한주간의<br>기도제목 |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br>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
|--------------|---------------------------------------------------------|

찬송 :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통 332)

본문 : 요한일서 1장 8~10절

말씀 :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은 교육이나 물질, 사회제도가 아닌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를 봅시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탐욕에 눈이 멀거나 이기심으로 귀가 닫힌 경우가 적잖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타인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혹시 내 죄를 알고 있을까 싶어 주변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겁이 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려 드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둘째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해져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나아가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죄는 계속 새끼를 치며 커져만 갑니다. 이것이 죄의 수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러한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밋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밋세바의 남편인 부하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를 보고도 조용히 그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나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양심이 무뎠던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다윗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버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폭로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통나면 심판을 받고 주변인에게 갖은 멸시와 물리적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극한 정신적 억압을 받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죄를 시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겁박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왕위도 빼앗지 않았습니 다. 그의 인격을 존중해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는 사실 엄청난 특혜입니다.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해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미쁘고 의로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입니다.

## 제 목

##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딤후 2:14~18)

## 서 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 1.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과 부끄러운 일꾼

## (1) 선한 일꾼

- 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15절).
- ②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 ③ 사람들의 믿음을 세움.

## (2) 거짓 일꾼

- 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
- ②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감(16절).
- ③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감(17절).
- ④ 후메내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 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림(18절).

## 본 론

## 2. 교훈

- (1) 선한 일꾼과 거짓 일꾼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2)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결과는 무엇인가?
- (3) 망령되고 헛된 말의 결과는 무엇인가?

## 결 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옳다 인정 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          | 오늘 섬기실 분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2부 예배 기도 | 편도선 장로   | 박영근 장로     |
| 2부 예배 헌금 | 방성자 집사   | 백영미 집사     |
| 오후 예배 기도 | 오세일 권사   | 이은자 권사     |
| 주 방 봉 사  | 루디아회     | 요셉회        |

| 매일 Q.T. |                                                                                                                                                                                                                                                                   | 불완전한 순종으로<br>버림받는 인생 | 날짜 : 2월 20일 |
|---------|-------------------------------------------------------------------------------------------------------------------------------------------------------------------------------------------------------------------------------------------------------------------|----------------------|-------------|
| 찬양      |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                      |             |
| 본문      | 사무엘상 15:10~23                                                                                                                                                                                                                                                     |                      |             |
| 말씀요약    |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밤새 부르짖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며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고 말해 줍니다.                                                                                                        |                      |             |
| 묵상질문 1  | 사울의 변명 15:10~15<br>사울의 불순종에 하나님과 사무엘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 생애에서 하나님 마음을 실망을 안겨 드린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버림받은 사울 15:16~23<br>사무엘의 질책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 기보다 먼저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사무엘상 15장 22절<br>성도의 삶은 하나님 기준에 나를 맞춰 가는 여정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자기 기준을 고집하며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20~21절). 멋지고 세련된 세상 논리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양의 기름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제 안에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실망과 섭섭함을 드리는 불순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한결같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는 자녀 되게 하소서.                                                                                                                     |                      |             |

| 개인성경공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                                                                                                                                                                                                                                                                                                                                                                                                                                                                                                                                                                                                                                                                                                                       |
|----------------------|-----------------------------------------------------------------------------------------------------------------------------------------------------------------------------------------------------------------------------------------------------------------------------------------------------------------------------------------------------------------------------------------------------------------------------------------------------------------------------------------------------------------------------------------------------------------------------------------------------------------------------------------------------------------------------------------------------------------------|
| 찬양과 기도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370)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이야기 속으로              | 한 목사가님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선교 단체의 사역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듣고자 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목사님은 교회의 선교 담당 장로님과 잠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선교 단체와 함께하며 사역을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 년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되, 후원 명분으로 삼도록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선교 단체의 이사 목록에 올려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당장은 대답할 수 없으니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돌아와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후원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역하고, 선교 단체의 사역을 외부에 더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일과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에 연락해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단 사역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문제의 본질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 말씀 나누기               | 사무엘상 16:1~13                                                                                                                                                                                                                                                                                                                                                                                                                                                                                                                                                                                                                                                                                                          |
| 묵상포인트                |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 찾는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 주시며, 그 일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왕을 택하시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서도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다윗처럼 그 중심이 진실하며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관찰과 묵상               |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갈 명분을 묻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2절)                                                                                                                                                                                                                                                                                                                                                                                                                                                                                                                                                                                                                                                     |
| 적용하기                 |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
| 함께 기도하기              |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 기도                   |                                                                                                                                                                                                                                                                                                                                                                                                                                                                                                                                                                                                                                                                                                                       |

| 매일 Q.T. |                                                                                                                                                                                                                                                          | 거대한 골리앗의 존재를<br>두려워하는 백성 | 날짜 : 2월 24일 |
|---------|----------------------------------------------------------------------------------------------------------------------------------------------------------------------------------------------------------------------------------------------------------|--------------------------|-------------|
| 찬양      |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                          |             |
| 본문      | 사무엘상 17:1~11                                                                                                                                                                                                                                             |                          |             |
| 말씀요약    | 블레셋 군대가 싸우려고 와서 진을 치니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전열을 벌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지닌 낫 투구, 비늘 갑옷, 낫 단창 등의 무기는 엄청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돈우며,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와 싸워 이긴다면 블레셋이 그들의 종이 되겠다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                          |             |
| 목상질문 1  |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 17:1~7<br>골리앗의 모습을 상세히 서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목상질문 2  |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 17:8~11<br>무시무시하게 생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두려움 혹은 불안 속에서 나의 눈과 귀는 현재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                          |             |
| 한절목상    | 사무엘상 17장 4절<br>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일대일 싸움을 제안하며 완전 무장을 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보냅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는 사람은, 갑옷으로 온몸을 방어하고 방패 든 사람까지 준비한 골리앗의 내적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이기는 비결은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과도 같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제함과 능력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원수의 위협과 조롱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뒤늦은 회개,<br>바뀌지 않는 결정 | 날짜 : 2월 21일 |
|---------|---------------------------------------------------------------------------------------------------------------------------------------------------------------------------------------------------------------------------------------------------------|----------------------|-------------|
| 찬양      |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                      |             |
| 본문      | 사무엘상 15:24~35                                                                                                                                                                                                                                           |                      |             |
| 말씀요약    |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길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각을 죽인 후 라마로 돌아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                      |             |
| 목상질문 1  | 뒤늦게 회개하는 사울 15:24~31<br>하나님이 사울의 뒤늦은 회개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요?                                                                                                                                                     |                      |             |
| 목상질문 2  | 아각을 죽이는 사무엘 15:32~35<br>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이기에 내가 미완으로 남기지 않고 확실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
| 한절목상    | 사무엘상 15장 30절<br>하나님은 이익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 앞에서 승리의 제사를 지내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중심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승리를 자랑하려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서 점점 타락해 가는 사울의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기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사울을 향한 공의의 심판 속에서 그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인자하시고 성내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하나님의 선택 기준<br>외모가 아니라 '중심' | 날짜 : 2월 22일 |
|---------|-----------------------------------------------------------------------------------------------------------------------------------------------------------------------------------------------------------------------------------------------------------------|----------------------------|-------------|
| 찬양      |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             |
| 본문      | 사무엘상 16:1~13                                                                                                                                                                                                                                                    |                            |             |
| 말씀요약    |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막내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                            |             |
| 목상질문 1  | 새로운 왕을 예비하심 16:1~3<br>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주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목상질문 2  | 기름 부음 받은 다윗 16:4~13<br>하나님이 첫째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 조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                            |             |
| 한절묵상    | 사무엘상 16장 7절<br>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용모와 신장 때문에' 그가 왕 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시며 그분의 관점을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저의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만나 깨끗한 그릇이기를 원합니다. 제게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소서. 매사에 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악한 영을 물리치는<br>성령의 사람 | 날짜 : 2월 23일 |
|---------|-----------------------------------------------------------------------------------------------------------------------------------------------------------------------------------------------------------------------------------------------------------------|----------------------|-------------|
| 찬양      |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             |
| 본문      | 사무엘상 16:14~23                                                                                                                                                                                                                                                   |                      |             |
| 말씀요약    |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힙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을 타면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키게 사랑해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회복됩니다.                                                                                                   |                      |             |
| 목상질문 1  |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 16:14~18<br>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 신하들이 제시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성령이 다스리는 삼과 악령이 다스리는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                      |             |
| 목상질문 2  | 사울을 섬기는 다윗 16:19~23<br>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                      |             |
| 한절묵상    | 사무엘상 16장 14절<br>성도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과 동시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이라는 말은 악령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려 줍니다. 또한 악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 줍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악한 영이 틈타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에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신뢰'와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흠으로 지으신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                      |             |